

#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평가기능과 과제

김 상 호 |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I. 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 설립과 더불어 대학기관평가와 학문영역평가를 통하여 양적 성장기의 대학 발전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학문분야별로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매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교협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던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가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설립으로 그 역할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의 경우, 대교협은 평가대상 학문분야 8개 분야를 일괄 위탁받지만, 이 중 공학 3개 분야는 공학교육인증원에, 간호학은 간호교육평가인정원에 재위탁을 하여 해당 학문분야를 평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던 학문분야평가의 주체가 학문분야별로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분야평가에서 해당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학문분야별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국

제 수준 지향의 평가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단순히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해당 학문분야평가를 맡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대교협의 유기적 협조관계 속에서 시행된 학문분야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구가 다양화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출발에서 결과활용에 이르기까지 문제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평가는 실제로 평가기구와 피평가기관인 대학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원칙에 바탕을 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 현황을 설립시기와 평가실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정부의 학문분야

별 평가기구 활성화 방침과 관련된 제도 정비의 선결 과제를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현황 검토

### 1. 대교협의 학문분야평가인정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설립 이후, 대학평가를 실시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교협은 “대학의 학과별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986), “학과평가편람”(1990), 그리고 “1991~2000 학과평가인정편람”(1991)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강화된 평가제도 확립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1992년도부터 학과평가인정제가 도입되었고 1999년에는 종래의 학과평가인정제를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문분야평가인정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당시 학부제 정책 반영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때를 전후하여 대학들이 종래의 학과의 명칭을 버리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상호 결합하는 ‘융합’ 내지 ‘복합’ 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이다.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목적은 학문분야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학문분야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학문분야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변별력 있는 대학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바탕에 입각하여 대교협은 1992년 학과평가인정

제를 실시한 이래 2005년까지 44개 학문분야, 2,000여 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2.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와 의과대학 평가

1993년 대교협이 한국학교육학회에 의뢰하여 전국 20여 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학계열 학과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가 본격 논의되었다. 이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학교육학회가 중심이 되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1998년 7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Accreditation Board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 : ABME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는 학문분야별 평가기구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자율적인 민간평가기구이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999년부터 인정평가를 실시하여 8개 대학을 예비평가하였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1주기 인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주기(2000~2004년) 의과대학평가를 통해서 전국 41개 의대 중 31개 의대에 대해 인정평가를 하였고, 10개 의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평가를 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주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정평가 기준을 세운 뒤 2007부터 2009년까지 2주기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주기 평가가 교수 수, 실험실 및 실습병원 보유 여부 등 양적 측면을 따졌다면 2주기에선 질적 측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bmek.org> 참조).

### 3. 공학교육인증원과 공학교육 평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ABEEK)의 설립은 한국공학한림원을 중심으로 한국공학기술학회와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었고, 산업체와 공학전문학회,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ABEEK)은 1997년 9월 설립 준비 절차를 걸쳐 1999년에 창립이 이루어졌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1년 시범인증평가사업으로 동국대학교 8개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3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2년 3개 대학 18개 프로그램, 2003년 4개 대학 29개 프로그램, 2004년 6개 대학 32개 프로그램, 2005년 7개 대학 31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 4. 한국간호평가원과 간호학 분야 평가

한국간호평가원은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대한간호학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전문대학장·학과장협의회가 2001년 5월 10일 한국간호평가원 개원 기념학술대회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한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기구이다.

“능력 있는 간호사 양성과 간호의 수준 보장

을 위한 질 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는 한국간호평가원은 그동안 간호교육기관 인정평가사업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6년도 간호학 분야 평가를 위탁받아 시행할 것이라 한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교육평가, 면허 및 자격시험 관리, 간호 관련 저작권 등 간호계의 중요한 질 관리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학 분야 평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은 FIKA(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주도하에 2004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5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7년 국내 건축설계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건축가연맹(UIA)이 한국 대학의 건축학과에 국제 인증을 요구한 상태에서 설립된 건축학 분야 평가인증기구라는 점에서 여타의 학문분야평가인증기구의 설립배경과는 다소 다르다. 현실적으로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는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비상 상태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 간 협상 내용이며, 건축사가 되려면 국제 인증을 받은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0년쯤이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출신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증 업무를 위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출범한 것이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설립배경은 이제 대학교육에도 KS나 ISO와 같은 품질규격이 매겨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에 이어 현재 평

가인증기구 설립을 준비 중인 학문분야로는 경영학 분야가 있다. 전국경영대학(원)장협의회는 경영교육을 평가하는 인증사업을 전담할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설립하여 각 대학에 대한 인증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

### Ⅲ. 학문분야별 평가기구 활성화의 선결과제

OECD/UNESCO는 최근 전 세계의 국가 간 고등교육 질 관리 지침 마련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대학평가 인증체제의 당면 과제는 고등교육의 국제교류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과 국내 대학을 동시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UNESCO와 OECD가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한 이유는 WTO와 GATS가 추진해 온 고등교육 개방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 혁명에 기인하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자 보호라는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 고등교육 개방 이행이라는 환경 변화와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품질 보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한편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재정비하고 있다.

대교협에서 실시해 온 대학평가는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온정주의 평가를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우리 대학의 양적 성장기에 대학의 발전 및 질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음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교협 대학평가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학문분야평가의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대교협에만 의존하는 평가시스템으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학문분야별 전문평가기구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교협이 모든 국제적인 학문분야별 전문평가기구와 협력체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설립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를 활성화하여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새로운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남설은 평가의 본래 목적이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평가의 기본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의 시행은 학문분야 질 관리와 발전이라는 학문분야평가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는 대학평가를 둘러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대학에 평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나름대로의 학문분야별 평가기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주요 선결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의 과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는 나름대로 기관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철학과 평가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목적이 타당하며, 적절한 조직

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담당할 주체로써 평가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한 사후 메타 평가도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설립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는 자율적 질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당 학문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방치되면 UNESCO와 OECD가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부적절한 고등교육 질 인증 평가'로 변질될 수 있다.

대학평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연방 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승인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대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연방 고등교육법 Title 34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평가인증기구

승인 절차는 인증기관의 인정 신청, 연방 교육부 담당자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정신청서 검토, 기관 질 통합 국가 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사, 연방 교육부장관에 의한 검토와 결정, 인증기관의 연방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청원 순이다. 각 단계별로 분석·검토되고 심의·결정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 학문분야평가의 기본철학 확립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재정지원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의 경우 대교협이 8개 학문분야를 일괄 위탁받아 공학계열 3개

<표 1> USDE의 대학평가 인정기구 인정 절차

인증기관 인정신청	연방 교육부 담당자 인증기관 인정신청서 및 인증 적격성 검토	기관 질 통합 국가 자문 위원회심사	연방 교육부 장관에 의한 검토와 결정	승인신청 심사결과 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요청 범위 진술</li> <li>• 인정기준 준수 입증</li> <li>• 증빙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의 신청서 유관기관에 송부</li> <li>• 인정신청서 분석</li> <li>• 인증기관의 인증의 충실성 분석</li> <li>• 인증기관에 대한 담당자 검토 및 제3집단의 논평</li> <li>• 인정신청 인증기관의 소명</li> <li>• 인증기관의 소명내용에 대한 연방 교육부 담당자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신청서</li> <li>• 연방 교육부 담당자, 인증기관, 다른 이해관련 집단 등이 그 회의에서 구두 프레젠테이션</li> <li>• 인정승인 또는 거부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인정 결정을 연기할 수 있음</li> <li>• 인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 결정에 대한 청원</li> <li>• 연방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청원</li> </ul>

\* 출처 : 이영호 · 김순남(2005)

분야는 공학교육인증원에, 간호학 분야는 간호평가원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대교협은 학문분야평가와 공학교육인증원과 간호평가원의 학문분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이 많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교협의 학문분야평가는 학과평가인정제에서는 순수하게 학문분야별 최소요구기준(minimum requirement) 확보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인정평가(accreditation)였으나, IMF 이후 바뀐 학문분야평가인정제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목적이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인정/불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인정평가(accreditation)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그 등급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평가를 받은 대학을 최우수, 우수, 인정으로 등급을 정하여 발표를 했는가 하면,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순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수행하는 학문분야평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교협의 재위탁을 받아 평가에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원과 간호평가원은 어느 정도까지 기존의 학문분야

평가 방법을 수용해야 할 지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한 대교협은 공학교육인증원과 간호평가원에 어느 정도까지 기존의 학문분야평가의 원칙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그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는 평가의 기능 약화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학문분야평가의 주관 부처인 교육부는 첫째, 자율적 질 관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경쟁력 강화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둘째, 절대평가에 의한 인정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평가를 통하여 선의의 대학경쟁력을 유도할 것인가? 셋째, 평가를 받고 싶은 대학에 평가를 실시하는 자율선택을 위한 신청주의를 택할 것이냐, 해당 학문분야의 전국 전체 대학의 현재와 수준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일제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넷째, 평가의 대상과 내용의 범위를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 평가에 역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학문분야 전반에 걸쳐 최소요구기준의 충족성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등에 평가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평가철학과 목적이 분명해야만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대한 승인을 명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문분야별

<표 2> 대교협과 인증원 평가 비교

구 분	대교협평가	인증원 평가
평가목적	분야별 최소요구기준(minimum requirement) 확보 여부에 대한 인정평가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대한 인증평가
평가범위	학문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	학문분야 교육프로그램평가 중시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평가 절대평가 + 상대평가	정성평가를 중시 절대평가
평가결과 판정	인정/불인정 판정 인정대학에 대한 등급 부여	인증/불인증
평가시기	주기평가	상시/지속적

평가기구의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철학 또는 평가의 목적이 국가적 차원의 평가의 목적과 서로 다를 경우 스스로 평가철학과 목적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변경을 하여 평가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3. 학문분야평가의 예산지원 방식의 전환

지금까지 대교협이 학문분야평가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일제 평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 평가방식에서 신청주의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별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비용은 당연히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고등교육의 품질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정부의 행·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를 복수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문분야 평가예산은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 지원비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재학생만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생 학자금지출과 대학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4.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조직 정비의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설립된 것은 최근의 일로 그 역사가 짧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들은 해당 학문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동료 교수평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학문분야 관련 평가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기획을 할 수 있는 평가전문 프로젝트 매니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문분야별 평가기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해당 학문분야평가를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정부는 대학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교협이 20여 년 동안 전담을 해오던 학문분야평가는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계속 설립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쟁점과제는 1)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의 과제 2) 학문분야평가의 기본철학 확립 3) 학문분야평가의 예산지원 방식의 전환 4)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조직정비의 과제 등이다.

향후 새로 설립되는 학문분야별 평가기구가 대학평가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승인해 주고, 해당 학문분야평가를 공정한 절

차에 따라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메타학문분야평가는 해당 학문분야별 대학을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메타평가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문분야평가가 학문분야별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학문분야평가가 학문분야의 발전과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문분야평가가 첫째, 학문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증 효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둘째, 대학 선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셋째, 대학의 재정 지원 시 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안이 있고, 넷째, 기업의 인재 채용 시 활용하며, 다섯째, 학문분야 발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학문분야평가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 참고 문헌

- 신재철 외(2004).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패러다임 모색: 목적과 방향. 서울: 한국대학교육위원회, 연구보고 RR 제2004-2-214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2).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국내이행강화 방안 연구 및 전문가 회의.
- 이영호·김순남(2005). USDE의 대학평가 인증기구 인정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14(2)
- 이현청 외(2003). 미국대학 평가기구(CHEA)와의 종합적 평가 업무 협력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6). 대학의 학과별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0). 학과평가편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1). 1991~2000 학과평가인정편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 5년주기 학문분야평가 시행방안 연구.
- UNESCO(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 EQUA(2005).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USDE(2005). *Colleg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 <http://www.ed.gov/print/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html> 2005년 7월 25일 접속. HEA Title 34. <http://www.ed.gov/legislation/FedRegister/finrule/1999-4/110199b.html>. 2005년 8월 10일 접속
- 한국간호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abon.or.kr>)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aab.or.kr>)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abEEK.or.kr>)
- 한국과학기술인정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bme0k.or.kr>)